

근초고왕[近肖古王] 백제의 전성기를 이룩한 정복군주

미상 ~ 375년(근초고왕 3)



서울 석촌동 고분군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근초고왕(近肖古王)은 백제 제13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346년~375년이다. 활발한 정복활동을 펼쳐, 남쪽으로는 마한 세력을 통합하고 가야 지역까지 진출했다. 북쪽으로는 대방군과 낙랑군의 일부 지역을 확보했고, 평양성까지 진출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요서지역과 왜에도 진출하여 활발히 교류했다. 이로써 백제 역사상 최대 영토를 자랑하며 전성기를 이룩했다.

2 근초고왕의 가계와 왕위계승

근초고왕은 조고왕(照古王) 또는 초고왕(肖古王)으로도 전해진다. 『진서(晉書)』에는 ‘여구(餘句)’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제11대 비류왕의 둘째아들이다. 왕비는 진씨이고, 아들은 근구수왕(近仇首王, 재위 375~384)이다. 346년부터 375년까지 30년간 백제를 다스렸다. 서울 석촌동 3호분을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백제사에서 분서왕(汾西王, 재위 298~307)부터 근초고왕까지의 왕위계승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백제 왕계를 이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초고계와 고이계가 번갈아서 왕위에 오르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먼저 10대 분서왕은 고이왕-책계왕으로 이어지는 고이계 왕이었다. 그런데 분서왕 사후 비류왕(比流王, 재위 307~344)이 왕위를 계승했다. 비류왕은 초고왕-구수왕으로 이어지는 초고계이다. 그런데 11대 비류왕이 죽자, 이번에는 분서왕의 맏아들인 고이왕계 계왕(契王, 재위 344~346)이 즉위했다. 계왕은 즉위 3년 만에 사망하는데, 그 뒤를 이어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자 초고계인 근초고왕이 즉위하게 된다.

근초고왕의 즉위 이전 왕위계승은 초고계와 고이계에 의해 분립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근초고왕 이후부터는 근초고왕의 직계가 계속 왕위를 계승하면서 초고계에 의한 단선적인 왕위계승이 확립되었다. 왕위계승이 안정됨으로써 왕권이 안정되었고, 정국 운영의 주도권도 귀족이 아닌 왕이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내 정치의 안정은 근초고왕이 대외 정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3 근초고왕의 내치(內治)